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통해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임 혜 은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 세 영²⁾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탐색하고,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남녀청소년 500명(남학생 245명, 여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기관을 통해 자기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상관분석, 다중매개모형,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경험은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아동학대경험은 경험회피와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학대경험,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에 따라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환경 및 개인심리적 기제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청소년으로 하여금 전위된 공격행동이 발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성에 따른 차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조기중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연구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주요어 : 아동학대경험, 경험회피, 사회불안, 분노억제, 전위된 공격행동

* 본 논문은 임혜은의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을 일부 수정·보완한 논문이며,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evenhow@ewh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에 들어 청소년에게서 우발적이거나 뚜렷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화풀이식 공격행동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격행동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분노와는 상관없는 무고한 약자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뚜렷한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화풀이식 공격행동을 보인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대검찰청(2020)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에게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주로 우발적이거나 동기가 미상인 상태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타인이나 여성, 노인, 또래와 같이 약한 상대를 향해 저지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년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실태조사(한국교육개발원, 2021)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을 가하였다고 대답한 경우가 36.4%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직접적인 원인이 없거나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행동은 추후에 묻지마 폭행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더 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행위적 개념인 전위된 공격행동에 초점을 맞춰 그 발달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전위된 공격행동은 분노를 유발한 특정 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공격성을 유발한 대상

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할 수 없는 경우 공격성을 억제하였다가 해당사건과는 상관 없는 무고한 대상 또는 직접적인 분노유발자가 아닌 사소하고 모호한 촉발자극을 제공한 타자에게 공격성을 표출하는 간접적인 공격행동을 의미한다(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 청소년기와 전위된 공격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적인 발달 중에서도 가장 심리적인 변화가 많은 시기로 소속과 관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또래들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Crozier & Burnham, 1990). 또한, 과업에 대한 부담감이 늘어나고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게 되나 사회문화적 특성상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의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그 중에서도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부적절한 정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Markus & Kitayama, 1994) 유발된 분노를 억누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약자나 타자를 대상으로 전위된 공격행동과 같은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환경 뿐 아니라 정서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며, 전위된 공격행동은 유발되는 분노를 억제하였다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상에게 억눌러놓았던 분노를 한꺼번에 표출하게 되는 공격행동인 만큼 청소년기에는 주로 학교 현장이나 또래관계에서 심각한 가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과 이를 유발시키는

발달기제에 초점을 맞춰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환경요인으로 부정적인 양육에 해당하는 아동학대경험을 들 수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김광혁, 2009; 김세원, 이봉주, 2010; Straus, 1994),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청소년기에 이르러 더 많은 심리사회적인 적응문제를 보였으며,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서행동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수정, 정익중, 2013; Sousa et al., 2011). 또한, 아동학대는 불안이나 분노 등과 같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김세원, 이봉주, 2010; 배라영, 최지영, 2018; Shipman, Edwards, Brown, Swisher, & Jennings, 2005) 뿐 아니라 외현화된 문제행동 중에서도 공격성이라는 위험요인을 발달시키는 매우 강력한 예측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들(김재철, 최지영, 2011;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Brandon, 2008; Glaser, 2002)이 꾸준히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 일반긴장이론과 좌절-공격가설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과 경계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분노나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며, 피할 수 없는 학대상황에서 자기무력감이나 좌절감을 경험하면서 이는 공격행동의 발달로 이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Agnew, 2006).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특징을 보였으며(김수정, 정익중, 2013), 직접적인 공격행동 뿐

아니라 전위된 공격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도희, 2018;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최영, 김현수, 2018; 황선주, 박기환,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어 아동학대라는 환경적 요인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기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또래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은 대개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에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학대와 같이 부정적인 양육환경으로부터 발달하기 쉬운 회피나 불안기제는 부적절한 또래 및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쳐(Agnew, 2006) 대인관계상황에서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사회불안이 발생할 때에는 오히려 개인의 행동을 보류하거나 철회하였다가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경험으로 인해 형성되기 쉬운 개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경험회피와 사회불안을 들 수 있다.

경험회피는 신체적 감각, 정서, 사고나 기억 등 개인이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회피하고자 시도하는 회피경향성으로 개인이 고통에 대처하는 하나의 전략이자 반응양식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Hayes, Wilson, Gifford, Follette, & Strosahl, 1996). 아동은 주로 양육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상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이로 인해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자극과 고통에 대처하기 위한 부적응적인 방편으로 경험을 회피하게 된다(Fiorillo, Papa, & Follette, 2013). 특히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학

대상황에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하게 형성하거나 좌절감과 무력감에 의해 회피기제가 발달하게 되는데,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방어전략이자 자기보호장치로 경험회피를 사용하게 된다(Kashdan & Steger, 2006).

아동학대경험으로부터 발달하기 쉬운 부정적인 정서기제 중 하나로 주로 대인관계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부정적인 정서요인인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불안은 낯설거나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으로(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사회불안이 높은 개인은 낯선 상황에서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관찰되거나 평가되어지는 상황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아동학대경험은 주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갈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커지게 된다(이재용, 2018). 또한, 아동학대과정에서 대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상황이나 관계적 상황에서 심각한 내적불안과 두려움을 겪으며 높은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배라영, 최지영, 2018).

회피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시키는 가장 원초적인 내적기제로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상황들마다 경험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성장과 대인관계의 발전에 있어 또 다른 부정적

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Kashdan & Steger, 2006). 그 중에서도 경험회피를 통해 개인의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감정 등을 회피하며 간과하려고 할수록 내적불안감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Clark & Wells, 1995; Wong & Rapee, 2016). 이처럼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에 익숙해질수록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단서들을 빠르게 찾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사회불안을 더욱 민감하게 발달시키게 된다(송정선, 2017; Breen & Kashdan, 2011).

사회불안이 높은 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양한 공격행동들을 보였다(배라영, 최지영, 2018; Batanova & Loukas, 2011;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대개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지니고 있는 경향이 높아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없으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나 새롭고 낯선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나 평가를 받는 등 개인적으로 사회적 위협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비난이나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기 보다는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거나(노우빈, 홍혜영, 2016; Dahlen, Czar, Prather, & Dyess, 2013; Loukas et al., 2005), 직접적인 분노유발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이를 대신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세영 등, 2019).

전위된 공격행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아동학대경험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이를 통해 형성되기 쉬운 부적응적인 개인 및 사회심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전위된 공격행동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으로 개인의 분노를 역기능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박정호, 2019; 오현지, 2019; 장영혜, 2019; 황지연, 연규진, 2018) 이들 간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함께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부정정서인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은 개인이 감정을 표현하는 대응방식이자 정서적 반응을 행동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김진아, 2007) 개인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제각기 다르게 나타난다(이근배, 조현춘, 2008). 특히 청소년기는 내외적으로 급격한 발달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다양한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노가 증가하게 되나(박정호, 2019), 성인과는 달리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적어 분노를 적응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분노관리에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특히 분노가 공격성과 같은 사회부적응 행동을 불러일으키는데 주요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밝혀져 왔으나, 최근에는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박정호, 2019; 오현지, 2019; 장영혜, 2019; 황지연, 연규진, 2018). 그 중에서도 전위된 공격행동은 직접적인 분노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초점을 돌려 위해를 가하는 공격행동인 만큼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분노억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으며, 많은 연구들(민희진, 박경, 2015; 서민재, 박기환, 2013; 이나영 등, 2017; 이하나, 2009)을 통해 분노억제가 전위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경험을 통해 경험회피나 사회불안과 같이 부적응적인 기제를 내재화한 경우 분노가 유발된 상황에서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함으로써 상황을 피하거나 속으로 비판하는 등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억제하게 된다(Averill, 1983). 이는 아동학대가 자신보다 강하거나 지위나 권위가 있는 연장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하는 폭력하기에 청소년은 불안이나 분노 및 적대감 등을 형성하기가 쉬우며(Finkelhor & Browne, 1986),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인식하여 표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Allen, 2010). 경험회피와 사회불안 역시 아동학대로 인해 내적기제가 손상되어 나타난 부적응적인 정서요인으로 부정적 자아의 형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는 경험회피가 높을수록 부정적이거나 혐오적인 경험이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정서나 사고를 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며, 경험회피가 동기화될 경우 자신의 분노를 내부로 돌리거나 분노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Chawla & Ostafin, 2007; Hayes, Strosahl, Bunting, Twohig, & Wilson, 2004). 또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크게 작용하여 개인이 분노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적응적이며 기능적으로 분노를 조절하기보다는 분노억제와 같이 역기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경향이 높다(Erwin, Heimberg, Schneier, & Liebowitz,

2003; Hayes et al., 2004).

청소년의 성차와 관련된 선행연구(정혜란, 김미원, 2014)를 살펴보면, 아동학대경험에 있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아동학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지향적인 특성을 지닌 여학생에게는 아동학대경험이 남학생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 내적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험회피(이지향, 2019)와 사회불안(이아람, 김정민, 임수진, 2019; Essau, Sasagawa, Anastassiou, Guzman, & Ollendick, 2011) 역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다고 보고되었는데, 이는 남학생보다 정서적 고통에 더 민감한 여학생이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자극이나 단서를 쉽게 포착하여 보다 손쉽게 경험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불안이 발생하는 대인관계상황에서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분노억제와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박수진, 2018; 신현경, 이승연, 2016)에서 역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분노를 내적으로 억제하며 억누르는 경향이 강하며, 분노유발상황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을 예측하는 환경과 내적변인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성에 따라 구분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통해 청소년의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경로가 성에 따라 달라지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남녀청소년 500명(남학생 245명, 여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기관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위된 공격행동이 유발되는 주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청소년 시기에도 전위된 공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혜은, 한세영, 2015),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당한 가압적인 신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최영, 김현수, 2018)에 기반하였다. 또한, 초·중기 청소년기는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또래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로 인한 부담감이 작용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상황이나 타인에게 평가받는 상황들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일으키는 사회불안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이미현, 2014; APA, 2013; Tillfors, Persson, Willen, & Burk, 2012)를 토대로 중·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500명의 설문응답 중 연구동의서가 누락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49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전위된 공격행동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가 개발한 전위공격성 척도(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이하나(2009)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공격성 척도(K-DAQ)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의 하위요인은 분노반추, 보복계획,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위공격성의 실제 행동요인인 전위된 공격행동 9문항만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전위된 공격행동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한다’, ‘난 화가 나면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풀이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아동학대경험

기존의 아동학대 연구들에서 사용되었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김현수(1997)의 학대경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세 가지로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방임의 경우 ‘식사 때가 되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은 적이 있다’ 등, 신체학대의 경우, ‘말로 해도 될 일을 부모님은 매부터 드신다’ 등, 그리고 정서학대의 경우, ‘부모님은 나를 형제, 자매나 이웃집 아이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야단치시곤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방임 .73, 신체학대 .91, 정서학대 .89, 전체 .92였다.

경험회피

수용-행동 질문지(Acceptance and Action Questionnaire-II; AAQ-II)를 허재홍, 최명식과 진현정(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AAQ-II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용래와 서동기의 연구(2017)에서 설명력이 매우 낮다고 보고한 4문항을 제외한 총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경험회피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내 감정을 느끼는 것이 두렵다’, ‘나는 내 걱정과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사회불안

La Greca와 Lopez(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양윤란, 양재원과 오경자(200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세 가지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등,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경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걱정이 든다’ 등, 그리고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의 경우, ‘나는 잘 아는 사람들과 있어도 수줍음을 탄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91,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86, 일반적 사회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79, 전체 .94였다.

분노억제

Spielberger, Kran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덕웅, 이장호와 전검구(1998)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상태분노, 특성분노,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구목적에 맞게 분노억제 8문항만 사용하였으며, 4점 Likert 척도를 통해 응답되었다. 분노억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으나 속으로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내 자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화가 나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전체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사용하여 다중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과 경로분석을 통한 구조모형 검증 두 단계에 거쳐 진행하였는데(Anderson & Gerbing, 1982),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E)을 사용하였으며, 모형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 χ^2 ,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변인들 간의 경로에 있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개별간접효과와 통계적 유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팬텀분석(phantom analysis)을 실시하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여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로 t 검정을 실시하고, 성별로 구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경로차이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기초자료를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포함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0.53 ~ 1.51)와 첨도(-0.06 ~ 2.03) 모두 Kline(2005)이 제안한 왜도(절대값 3 미만) 및 첨도(절대값 10 미만)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또한, 본 연구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경험은 경험회피($r = .51, p < .01$), 사회불안($r = .35 \sim .49, p < .01$), 분노억제($r = .52, p < .01$), 전위된 공격행동($r = .49, p < .01$)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경험회피는 사회불안($r = .43 \sim .58, p < .01$), 분노억제($r = .58, p < .01$), 전위된 공격행동($r = .44, p < .01$)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사회불안은 분노억제($r = .71, p < .01$), 전위된 공격행동($r = .50,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분노억제 역시 전위된 공격행동($r = .58,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1 참조).

측정변인들이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경험회피에서는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경험($t = -3.42, p < .001$), 사회불안($t = -3.28, p < .001$), 분노억제($t = -2.13, p < .05$), 전위된 공격행동($t = -2.74, p < .01$)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에 따라 구조적 관계와 경로가 다르게 예측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에 따라 다중집

단분석을 통해 남녀청소년 집단 간 차이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아동학대경험, 경험회피, 사회불안, 분노억제 및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여 설명하고 있는지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χ^2 값은 표본수에 크게 영향을 받기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확인한 결과,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1819.031(df = 1539, p < .001)$, NFI = .897, TLI = .978, CFI = .982, RMSEA = .019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표 3 참조). 또한, 본 측정모형에서는 단일변인을 제외한 아동학대경험과 사회불안에서의 모든 표준화된 회귀계수(β)의 절대값이 .52 ~ .89로 .4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alpha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데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그림 1 참조).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통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chi^2 = 66.206(df = 21, p < .001)$, NFI = .970, TLI = .965, CFI = .979, RMSEA = .066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의 양호한 수용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어서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및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493)

	1	2	3	4	5	6	7	8	9	10	11
1 아동학대경험	-										
2 방임	.71**	-									
3 신체학대	.87**	.42**	-								
4 정서학대	.89**	.43**	.69**	-							
5 경험회피	.51**	.36**	.40**	.49**	-						
6 사회불안	.49**	.32**	.40**	.49**	.56**	-					
7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49**	.31**	.39**	.49**	.58**	.92**	-				
8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35**	.22**	.26**	.36**	.43**	.87**	.66**	-			
9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45**	.30**	.38**	.42**	.45**	.86**	.69**	.68**	-		
10 분노억제	.52**	.34**	.41**	.51**	.58**	.71**	.66**	.63**	.59**	-	
11 전위된 공격행동	.49**	.33**	.39**	.49**	.44**	.50**	.49**	.39**	.43**	.58**	-
M	1.61	1.78	1.45	1.60	1.55	1.95	1.88	2.18	1.83	1.87	1.80
SD	0.47	0.48	0.57	0.64	0.60	0.58	0.64	0.75	0.60	0.57	0.66

** $p < .01$.

표 2. 성에 따른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 ($N = 493$)

변인		남 ($n = 245$)	여 ($n = 248$)	t
		$M(SD)$	$M(SD)$	
아동학대 경험	-	1.54(0.46)	1.68(0.47)	-3.42***
	방임	1.70(0.47)	1.85(0.48)	-3.58***
	신체학대	1.44(0.57)	1.46(0.58)	-.44
	정서학대	1.47(0.61)	1.72(0.65)	-4.47***
경험회피	-	1.52(0.58)	1.58(0.62)	-1.08
사회불안	-	1.86(0.56)	2.03(0.59)	-3.28***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1.75(0.60)	2.01(0.66)	-4.58***
	새로운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2.12(0.73)	2.24(0.76)	-1.77
	일반적 상황에 대한 회피와 불안	1.79(0.58)	1.87(0.61)	-1.49
분노억제	-	1.81(0.59)	1.92(0.55)	-2.13*
전위된 공격행동	-	1.71(0.63)	1.88(0.67)	-2.74**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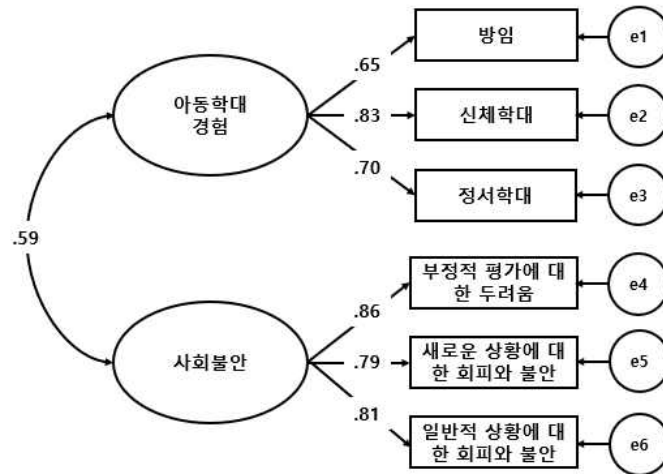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493$)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측정모형	1819.031***	1539	.897	.978	.982	.019 (.015 ~ .023)

*** $p < .001$.

확인한 결과(표 5, 그림 2 참조), 아동학대경험에서 경험회피($\beta = .56, p < .001$), 사회불안($\beta = .36, p < .001$), 분노억제($\beta = .15, p < .01$), 전위된 공격행동($\beta = .29, p < .001$), 경험회피에서 사회불안($\beta = .41, p < .001$), 분노억제($\beta = .15, p < .001$), 사회불안에서 분노억제($\beta = .59, p < .001$), 전위된 공격행동($\beta = .14, p < .05$), 분노억제에서 전위된 공격행동($\beta = .30,$

$p < .001$)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들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쳤다. 이는 즉, 아동학대를 경험할수록 경험회피, 사회불안, 분노억제, 그리고 전위된 공격행동이 증가하게 되며, 부정적인 과거경험을 회피할수록 사회불안과 분노억제, 전위된 공격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회불안이 높아지면 분노억제와 전위된 공격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β)는 $\alpha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그림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493$)

	χ^2	df	NFI	TLI	CFI	RMSEA (Lo90 ~ Hi90)
구조모형	66.206***	21	.970	.965	.979	.066 (.049 ~ .0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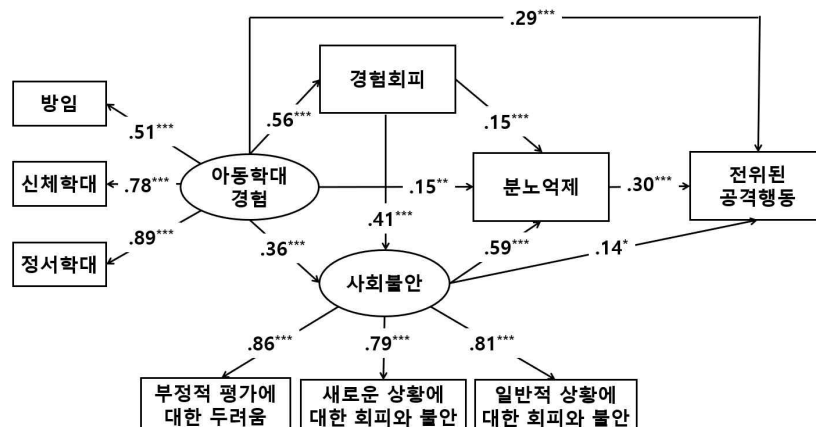
*** $p < .001$.

표 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493$)

잠재변인 간의 경로		B	β	S.E.	C.R.
아동학대 경험	→ 경험회피	1.35	.56***	.15	9.12
	→ 사회불안	.81	.36***	.13	6.04
	→ 분노억제	.33	.15**	.11	3.09
	→ 전위된 공격행동	.77	.29***	.15	5.14
경험회피	→ 사회불안	.37	.41***	.05	8.24
	→ 분노억제	.14	.15***	.04	3.52
사회불안	→ 분노억제	.61	.59***	.05	11.74
	→ 전위된 공격행동	.17	.14*	.08	2.04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35	.30***	.07	4.98

* $p < .05$. ** $p < .01$. *** $p < .001$.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오차항은 생략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표 6. 매개경로의 간접효과 검증

($N = 493$)

잠재변인 간의 매개경로	간접효과
아동학대경험 → 전위된 공격행동	.68**
아동학대경험 → 사회불안 → 전위된 공격행동	.13**
아동학대경험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12**
아동학대경험 → 경험회피 → 사회불안 → 전위된 공격행동	.08**
아동학대경험 → 경험회피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07**
아동학대경험 → 사회불안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17**
아동학대경험 → 경험회피 → 사회불안 →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11**

** $p < .01$.

되며, 분노억제가 높을수록 전위된 공격행동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의 변인들 간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각 변인들 간의 매개경로에서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설정한 후 각 간접경로들에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간접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모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였다(표 6 참조).

3. 아동학대경험, 경험회피, 사회불안, 분노억제 및 전위된 공격행동의 관계에서의 성차

아동학대경험이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표 7. 다중집단모형의 모형적합도 및 차이검증

(N = 493)

경로	χ^2	df	$\Delta\chi^2$	TLI	CFI	RMSEA (90% CI)
형태동일성	91.703***	42		.962	.978	.049 (.035 ~ .063)
측정동일성	95.558***	46	3.855	.965	.978	.047 (.033 ~ .060)
아동학대 경험	→ 경험회피	95.591***	47	.033	.968	.977 .046 (.033 ~ .059)
	→ 사회불안	97.475***	47	1.917	.968	.975 .047 (.034 ~ .060)
	→ 분노억제	102.214***	47	6.656**	.966	.972 .049 (.036 ~ .062)
	→ 전위된 공격행동	96.01***	47	0.452	.968	.976 .046 (.033 ~ .059)
경험회피	→ 사회불안	96.237***	47	0.679	.968	.976 .046 (.033 ~ .059)
	→ 분노억제	97.857***	47	2.299	.967	.975 .047 (.034 ~ .060)
사회불안	→ 분노억제	96.228***	47	0.670	.968	.976 .046 (.033 ~ .059)
	→ 전위된 공격행동	97.930***	47	2.372	.967	.975 .047 (.034 ~ .060)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98.611***	47	3.053	.967	.975 .047 (.034 ~ .060)
경로동일성	110.964***	55	15.406**	.965	.977	.046 (.033 ~ .058)

** $p < .01$. *** $p < .001$.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위해 두 집단의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한 형태동일성을 확인한 결과, χ^2 검증은 유의하였으나 모형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나 성에 따른 형태동일성을 확보하였다($\chi^2(42) = 91.703$, $p < .001$). 다음으로 형태동일성 모형에서 측정동일성을 추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χ^2 차이검증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측정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채택함에 따라 완전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였다($\Delta\chi^2(4) = 3.855, p > .05$). 마지막으로 경로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동학대경험과 분노억제의 경로에서만 남녀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Delta\chi^2(1) = 6.656, p < .05$) 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표 7 참조). 이는 즉, 해당 경로에서 아동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분노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성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를 세부적으로 확인한 결과(표 8, 그림 3 참조), 남자청소년 집단의 경우 대부분의 경로계수들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아동학대경험과 분노억제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청소년 집단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경로계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사회불안에서

전위된 공격행동으로 향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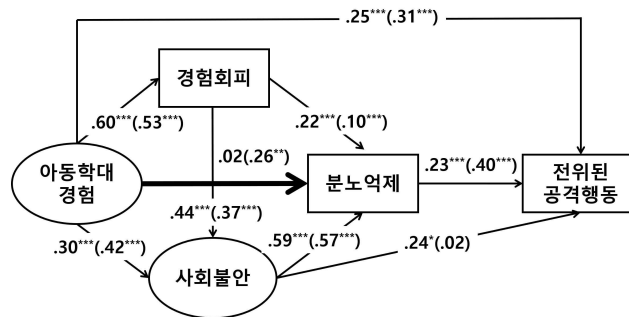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경험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경험회피, 사회불안 및 분노억제를 매개로 한 경로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함에 따라 본 연구결과가 지니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경험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할수록 자녀의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였으며(박현선 등, 2014),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전위된 공격행동이 높게

표 8. 성에 따른 다중집단모형의 경로계수 ($N = 493$)

잠재변인 간의 경로			남 ($n = 245$)		여 ($n = 248$)	
			B	β	B	β
아동학대 경험	→	경험회피	1.64	.60***	1.22	.53***
	→	사회불안	.74	.30***	.87	.42***
	→	분노억제	.06	.02	.54	.26**
	→	전위된 공격행동	.75	.25***	.77	.31***
경험회피	→	사회불안	.40	.44***	.33	.37***
	→	분노억제	.22	.22***	.09	.10***
사회불안	→	분노억제	.66	.59***	.56	.57***
	→	전위된 공격행동	.28	.24*	.02	.02
분노억제	→	전위된 공격행동	.25	.23***	.49	.40***

* $p < .05$. ** $p < .01$. *** $p < .001$.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β)임. 굵은 선은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유의한 경로임. 괄호 밖(좌)은 남학생, 괄호 안(우)은 여학생임.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다중집단모형 검증 결과

나타남에 따라(곽도희, 2018; 이나영 등, 2017) 아동학대경험이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최영, 김현수, 2018; 황선주, 박기환, 2014)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와 같이 부모라는 권위자가 지닌 힘의 위력에 의해 자신이 대항하기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위계적인 힘의 논리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신보다 약하거나 지위가 낮다고 여기는 대상에게로 주의를 돌려 전위된 공격행동을 표출시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경험은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환경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아동학대와 같이 거부적이며 적대적인 양육환경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주로 직접적인 사건과는 무관한 타인에게 화풀이식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분노라는 정서를 역기능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매

개체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기의 학대가 분노억제를 매개로 하여 전위된 공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문지혜, 박성옥, 2020)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전위된 공격행동을 많이 할수록 분노표출보다는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나거나 상관이 더 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장윤숙, 2017; 황지연, 연규진, 2018)와도 일치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험회피와 사회불안 역시 직·간접적으로 전위된 공격행동을 예측하기는 하나 분노억제를 일으키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도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경험으로 인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발달시키게 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소속집단으로부터 거부 또는 배제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노가 발생하는 순간에도 이를 기능적인 방식으로 발산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의식하여 분노 감정을 억누르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억제하게

된다. 따라서 분노억제는 경험회피나 사회불안과 같이 대인관계에 민감한 내적정서를 기반으로 발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역기능적인 정서표현방식은 내적발달경로를 통해 전위된 공격행동을 드러내는데 차별화된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성에 따라 분노를 억제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게 발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여학생의 경우 부정적인 아동학대경험 자체가 스스로 분노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반면, 남학생은 분노억제 이전의 내적 자아 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정서기제들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분노억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직접적인 분노표현을 더 많이 하며(Campbell & Muncer, 2008), 특히 부정적인 부모양육을 경험할수록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분노를 억제하는 형태로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Deffenbacher & Swaim, 1999)의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으로 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남학생의 경우 아동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자극이나 또래관계에서 불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기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서조절훈련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반면에 여학생은 일상생활에서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방치하거나 억누르기 보다는 보다 적응적이며 기능적으로 발산하며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 대처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개입이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온라인조사가 지닌 한계점으로 인해 주로 스마트폰 사용 또는 온라인 매체의 접근이 용이한 학생들 위주로 표집이 이루어지다 보니 다소 편향적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수집방법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 남녀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추후에는 연구변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청소년과 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발달 시기에 따른 의미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발달시키는 환경적 요인으로 아동학대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양육과정에서 아동학대경험을 통해 잘못된 습득한 위계적 힘의 논리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시작점이자 발달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아동학대는 경험회피나 사회불안과 같이 대인관계에 민감한 개인 및 사회심리적 기제를 발달시킴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발달한 분노억제가 전위된 공격행동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매개체이자 차별화된 내적기폭제로

작용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서는 성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따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전위된 공격행동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조기중재 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도희 (2018).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이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훈정, 조현주, 이종선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 정서강도와 자해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정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2), 191-216.
- 김광혁 (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세원, 이봉주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전환기동안 아동의 학대경험과 비행행동에 대한 잠재계층 간 관계. 아동과 권리, 14(3), 327-353.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효과와 최신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진아 (2007).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이 분노경험 및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1997).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경험과 아동의 또래 간 공격성 및 피공격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우빈,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7(2), 81-102.
- 대검찰청. (2020). 2020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문지혜, 박성옥 (2020). 아동기 정서적 외상이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1(2), 169-181.
- 민희진, 박경 (2015). 분노반추가 분노에 미치는 영향: 작업기억용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2), 391-409.
- 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집단 간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77-92.
- 박수진 (2018). 특질 전위공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노억제와 지각된 대인관계 지지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호 (2019). 학교분노가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탈중심화에 의한 분노억제의 조절된 매개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격성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 학교사회복지, 29, 1-24.
- 배라영, 최지영 (2018). 정서적 학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친구관계 문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2(1), 29-52.
<https://doi.org/10.17286/KJEP.2018.32.1.02>
- 서민재, 박기환 (2013). 전위 공격성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감, 신체화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63-181.
- 송정선 (201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1(2), 89-102.
- 신현경, 이승연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전위된 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배척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10), 259-285.
- 양윤란, 양재원, 오경자 (2008).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우울 증상간의 시간적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35-50.
- 오현지 (2019).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전위공격성의 관계: 분노억제와 사고통제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근배, 조현준 (2008). 한국판 분노반추척도의 타당화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22.
- 이나영, 하수홍, 장문선 (2017).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2), 203-222.
- 이미현 (2014). 청소년의 성에 따른 완벽주의 및 부모·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4), 87-112.
<https://doi.org/10.14816/sky.2014.11.75.87>
- 이아람, 김정민, 임수진 (2019).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경험이 가해염려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자기초점과 신체상염려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3), 217-229.
<https://doi.org/10.5934/kjhe.2019.28.3.217>
- 이재용 (2018). 대학생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및 방임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간 관계에 대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향 (2019). 청소년의 불안민감성과 걱정과의 관계에서 다차원적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나 (2009). 전위된 공격성 집단의 특성에 관한 탐색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혜은, 한세영 (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129-143.
- 장영혜 (2019). 열등감이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숙 (2017).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표현양식과 전위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조절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란, 김미원 (2014). 학대경험이 노인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양식의 조절효과. *노인복지연구*, 63, 7-33.
- 조용래, 서동기 (2017). 수용과 행동 질문지 제

- 2판(AAQ-II)에 대한 요인분석과 다분문항 이론의 적용: 지역사회 노인표본을 대상으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3), 402-417.
- 최영, 김현수 (2018).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험성의 관계에서 전위 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6(3), 321-341.
- 한국교육개발원. (2021).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울: 교육부.
- 한덕웅, 이장호, 전겸구 (1998).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18-32.
- 한세영, 임혜은, 이은경 (2019). 대학생의 내면화된 수치심이 전위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4), 139-157.
- 허재홍, 최명식, 진현정 (2009). 한국어판 수용-행동 질문지 2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61-878.
- 홍경자, 채유경, 이명자 (2000). 청소년의 비합리적 신념과 자아존중감,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그들의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 161-181.
- 황선주, 박기환 (2014). 우울-품행장애성향 청소년의 전위 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25-1147.
- 황지연, 연규진 (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1), 147-166.
- Agnew, R. (2006). *General strain theory: Current statu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taking stock: The status of criminological theory*. Piscataway, NJ: Transaction Publishers.
- Allen, J. R. (2010). From a child psychiatry practice. In R. G. Erskine (Ed.), *Life scripts: A transactional analysis of unconscious relational patterns* (pp. 151-178). Karnac Book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2). Some methods for respecifying measurement models to obtain unidimensional construct measurement.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9(4), 453-460.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atanova, M. D., & Loukas, A. (2011). Social anxiety and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s of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11), 1534-1543.
- Brandon, M. (2008). Analysing child deaths and serious injury through abuse and neglect: What can we learn?. *A Biennial Analysis of Serious Case Reviews*, 2003-2005.
- Breen, W. E., & Kashdan, T. B. (2011). Anger suppression after imagined rejection among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7), 879-887.
<https://doi.org/10.1016/j.janxdis.2011.04.009>
- Campbell, A., & Muncer, S. (2008). Intent to

- harm or injure? Gender and the expression of anger.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4(3), 282-293.
<https://doi.org/10.1002/ab.20228>
- Chawla, N., & Ostafin, B. (2007). Experiential avoidance a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psychopathology: An empirical review.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3(9), 871-890.
<https://doi.org/10.1002/jclp.20400>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41(68), 69-93.
- Crozier, W. R., & Burnham, M. (1990). Age rel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understanding of shynes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2), 179-185.
- Dahlen, E. R., Czar, K. A., Prather, E., & Dyess, C. (2013).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54(2), 140-154.
- Deffenbacher, J. L., & Swaim, R. C. (1999). Anger expression in Mexican American and White non-Hispanic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1), 61-69.
<https://doi.org/10.1037/0022-0167.46.1.61>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https://doi.org/10.1037/0022-3514.90.6.1032>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Yale University Press.
- Erwin, B. A., Heimberg, R. G., Schneier, F. R., & Liebowitz, M. R. (2003). Anger experience and expression in social anxiety disorder: Pretreatment profile and predictors of attrition and response to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Behavior Therapy*, 34(3), 331-350.
[https://doi.org/10.1016/S0005-7894\(03\)80004-7](https://doi.org/10.1016/S0005-7894(03)80004-7)
- Essau, C. A., Sasagawa, S., Anastassiou-Hadjicharalambous, X., Guzmán, B. O., & Ollendick, T. H. (2011).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Spence Child Anxiety Scale with adolescents from fiv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5(1), 19-27.
<https://doi.org/10.1016/j.janxdis.2010.07.001>
- Finkelhor, D., & Browne, A. (1986). Initial and long-term effects: A conceptual framework. In D. Finkelhor & S. Araji (Eds.), *A sourcebook on child sexual abuse* (pp. 180-198). CA: Sage.
- Fiorillo, D., Papa, A., & Follette, V. 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physical abuse and victimization in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experiential avoidanc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5(6), 562-569.
- Glaser, D. (2002). Emotional abuse and neglect (psychological maltreatment): A conceptual framework. *Child Abuse & Neglect*, 26(6-7), 697-714.
- Hayes, S. C., Strosahl, K. D., Bunting, K., Twohig, M., & Wilson, K. G. (2004). What is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In S. C. Hayes & K. D. Strosahl (Eds.), *A practical guide to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pp.

- 3-29). Boston, MA: Springer.
- Hayes, S. C., Wilson, K. G., Gifford, E. V., Follette, V. M., & Strosahl, K. (1996). Experiential avoidance and behavioral disorders: A functional dimensional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6), 1152-1168.
<https://doi.org/10.1037/0022-006X.64.6.1152>
- Kashdan, T. B., & Steger, M. F. (2006). Expanding the topography of social anxiety: An experience-sampling assessment of positive emotions, positive events, and emotion supp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17*(2), 120-128.
- La Greca, A. M., & Lopez, N. (1998). Social anxiety among adolescents: Linkages with peer relations and friendshi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2), 83-94.
- Loukas, A., Paulos, S. K.,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rkus, H. R., & Kitayama, S. (1994). A collective fear of the collective: Implications for selves and theories of sel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568-579.
<https://doi.org/10.1177/0146167294205013>
- Shipman, K., Edwards, A., Brown, A., Swisher, L., & Jennings, E. (2005). Managing emotion in a maltreating context: A pilot study examining chil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9*(9), 1015-1029.
<https://doi.org/10.1016/j.chiabu.2005.01.006>
- Sousa, C., Herrenkohl, T. I., Moylan, C. A., Tajima, E. A., Klika, J. B., Herrenkohl, R. C., & Russo, M. J. (2011).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parent-child attachments, and antisocial behavior in adolesc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 111-136.
<https://doi.org/10.1177/0886260510362883>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J. R. Eiser & M. P. Janisse (Eds.), *Individual differences,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pp. 89-108). Springer, New York, NY.
- Straus, M. A. (1994). *Beating the devil out of them*. Transaction Publishers.
- Tillfors, M., Persson, S., Willén, M., & Burk, W. J. (2012). Prospective links between social anxiety and adolescent peer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35*(5), 1255-1263.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2.04.008>
- Wong, Q. J., & Rapee, R. M. (2016). The aetiology and maintenance of social anxiety disorder: A synthesis of complementary theoretical models and formulation of a new integrated model.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3*, 84-100.
<https://doi.org/10.1016/j.jad.2016.05.069>

1 차원고접수 : 2022. 01. 10.

수정원고접수 : 2022. 02. 17.

최종게재결정 : 2022. 03. 23.

The Influences of Child Abuse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Lim, Hye Eun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Han, Sae-Young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child abuse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verify the effect of gender difference in structural relation. The participants were a total of 500 adolescents (245 boys and 255 girls) in middle and high school of South Korea.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by self-repor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multiple group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 abuse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Second, child abuse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rough their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Third, the influences of child abuse,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d anger-in on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showed in different ways across gender and reported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conclusion, this study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of an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mechanism of adolescents’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ccess of an appropriate discriminatory intervention across gender is important to prevent or decrease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adolescents.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and prevent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 in adolescents.

Keywords: child abuse, experiential avoidance, social anxiety, anger-in, behavioral displaced aggression